

매콤한 떡볶이에 부처님 가르침 가득



때로는 엄이처럼 자상하게, 때로는 상린보다 엄격하게 군인들에게 자비의 떡볶이를 전하는 이청자 보살.



군포교에 앞장서는
강노식·이청자 부부



“아저씨! 그릇들은 이쪽으로 옮겨야지... 아이구, 저 아저씨 좀 보게. 고추장을 그만큼 넣으면 어떡허?”
3월 21일 종교활동이 진행 중인 경기도 남양주시 75사단 철마부대 군법당. 여장군 못지않은 기세로 군인들을 호령하는 이청자(62·보현경) 보살과 함께 한 쪽에 쌓인 떡볶이 7말, 어묵 5상자, 각종 간식거리가 눈에 띈다. 오늘은 철마부대원들이 손잡아 기다리는 ‘떡볶이 법회’가 있는 날이다. 이 보살을 비롯한 4-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한 달에 한번 포박포박 불자군인들의 떡볶이 간식을 쟁긴 지도 벌써 5년이 훌쩍 넘었다.
떡볶이 법회는 이 보살의 남편 강노식(66·법명 지수) 포교사로 인해 시작됐다. 군에서 보기 드물게 신심 있는 불자였던 강 포교사는 중령으로 예편한 뒤 1997년 조계종 포교사가 됐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포

이 법회가 있는 일요일에는 2배가 넘는 250명 정도가 모인다. 단지 떡볶이 때문만은 아니다. 떡볶이 속에 담긴 두 사람의 열정과 포교철학 때문이다.
“군불교의 신행활동은 이웃종교에 비해 매우 열약합니다. 숫자도 적을뿐더러 비교적 해태도 적기 때문이지요. 민간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초코파이 하나, 불편 한 자루가 군인들에게는 종교활동의 선택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물질로 그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단 한번의 향내음, 한 구절의 부처님 말씀으로 평생 불법에 귀의하기를 바라는 서원 뿐입니다.”(이 보살)
지금까지 든든한 후원을 아끼지 않은 사람은 다름 아닌 이들 부부의 자녀들이다. 강순영(34·법명 선재행), 수한(32·법명 정심), 희수(31·법명 광명) 씨는 매달 조금씩

한달에 한번 떡볶이 봉사 5년째
유연, 강직함 심어주는 법문 전달
자녀 모두 불교 일 든든한 후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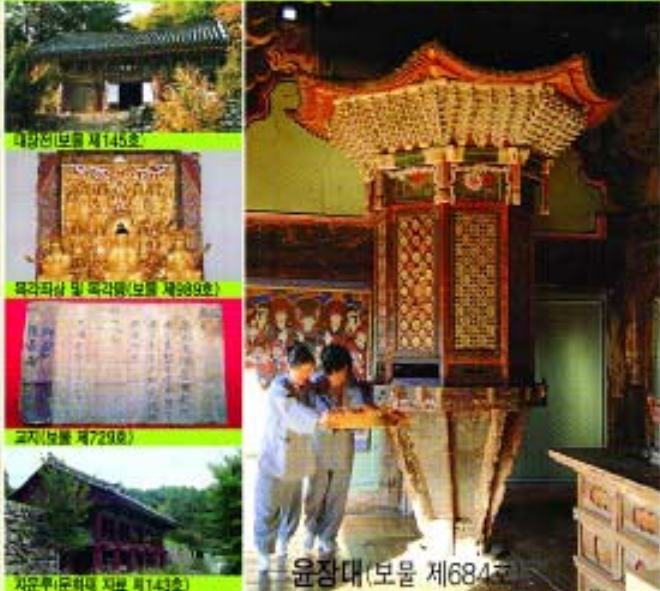
강노식 포교사는 언제나 참나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강조한다.

교에 뛰어 들었다. 남양주 봉선사 사무장을 맡으면서 근처 철마부대, 연천 28사단 신병교육대, 청학 호국사 등에서 군법회를 지도하게 됐다.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철마부대에서 이 보살이 떡볶이를 만드는 동안 강 포교사는 ‘참나를 찾는 행복’을 주제로 법문한다.
“군법당에서는 ‘수마(睡魔)’가 가장 큰 적입니다. 처음에는 불교입문서 위주로 법회를 진행하다가 오랜 고민 끝에 장병들에게 유연함과 강직함을 심어주는 메시지 전달에 중점을 두기로 했지요. 법문과 함께 장병들의 복창을 유도하면서 잡도 쫓고, 참여율도 높이고 있습니다.”(강 포교사)
두 부부의 노력의 결실은 법회 규모에서도 드러난다. 보통 법회 때는 100여명 안팎의 장병들이 모이지만 떡볶

모든 돈으로 이 보살의 떡볶이 봉사에 동참한다. 모두 서울 원교사 일요법회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불교화생활을 지도하는 등 신행활동에도 열심인 청년불자들이었다. 또 재료준비, 차량지원 등 여력을 아끼지 않는 동료 자원봉사자들도 떡볶이 봉사를 가능케 한 주역이다.
이런 힘을 모아 군포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의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 돈보다도 떡볶이를 만들 썰이나 사찰에서 49재를 지내고 남은 사랑, 약과 등 군인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 하나가 더 절실하다. 척박한 군포교의 현실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가족의 정을 듬뿍 담은 강 포교사 부부의 떡볶이 한 그릇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진다.

글=한상희 기자 · 사진=고영매 기자

간신년 윤달엔 천년고찰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천년고찰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 시대에 창건되어 구산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신맥을 이어 왔으며,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등 한국 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천년고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종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등 보물 및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윤장대는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많은 중생들이 정성껏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면 목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는 자비로움이며 영험한 부처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올해 갑신년에는 윤달이 있습니다. 윤달에는 ‘중속에 결흔하기에 좋고, 수의를 관드는데 좋다. 모든 일을 꺼리지 않는다. 윤달에는 사람들이 다 모여 와서 불공을 드리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극락세계에 간다고 하여 사람의 노인들이 분주히 달려오고 다 모여 모인다.’고 합니다(《동국서사기》). 특히 윤달에 섣전에수재를 행하기 전에 탈생과 사찰순례를 먼저 하면 불보살님의 무량한 가피가 환승 더 할 것이라 하여 사람들은 이름있는 절들을 찾아 방생을 합니다.
용문사에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40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용문사에 오셔서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모든 액이 소멸되고 바라는 바 소원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청 안 합경



용문사 소서는 길
 박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 (06:40~6:30, 30분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승용차(서울):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C
 승용차(부산):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C
 승용차(대구): 중앙고속도로 ⇒ 영동 ⇒ 예천C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 (우)757-800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